

장애와 여성에 대한 차별

김정란의 유령, 만가 장영희

김광이(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위원)

시인 김정란의 유령을 소재로 한 시에서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집안에서부터 유령대하듯 취급되던 장애인, 그저 소리죽여 가부장 서열을 우선시하고 성역의 유지를 강요받던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라 섬뜩하게 가슴에 닿는다. 아무리 열악해도 세월이 변했는데 극단적이고 과장된 느낌 아니냐고 혹자의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세월이 변하겠는가? 세월이 변해서 어려서는 누구나 이쁘고 귀엽고 가엾다고 보듬어 안고 업고 살아가겠지만, 사회적 인간으로 한 구절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삶의 과정이 악순환의 되풀이였던 여성장애인은 다시 자신이 유령 같다. 자신의 정체성마저 스스로 부정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가정과 교육 - “우리가 죽으면 오빠가 돌봐주겠지”

여성장애인 ㄱ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남자 형제 하나와 3명의 자매가 있다. 쪼들리는 생활에서도 가사의 중심은 아들에게 있었다. 오빠를 대학 졸업 시키기 위해 부모님의 고생은 물론 그녀의 자매들은 야간고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5학년에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이 붙어있는 특수학교로 전학했고, 중학교까지 졸업했다.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일반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그녀의 부모와 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집에 오면 힘들다. 오빠도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언니들도 돈을 모아 결혼해야 하고. 누가 너를 데리고 학교에 다니니!”

그녀의 우울에 대해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다.

“오빠와 나중에 올케한테 잘해라.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원래 오빠가 돌봐주겠지.”

지적 열등감을 심어준 특수학교

여성장애인 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에서 수학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특수학교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발전이나 사회성 개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어렵듯이 깨달았다. 한 학급이 겨우 12명인데 학생들 개개인의 학력증진에 성의가 부족해보이는 특수학교가 싫었지만 그녀는 다시 특수고등학교에 다녔다.

간헐적이라고 느껴지는 자의식을 조금이나마 표출할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교회에 다녔다. 거기서 또래들의 재기발랄하고 폭넓은 문화를 단지 바라만 보았다. 그들 속에 있기가 어려웠다.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그들의 대화와 지식은 자신을 더욱 열등하게 느끼게 했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해주지 않았고, 특수학교를 오래 다녀서 기초실력의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 일반학교를 다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내 분위기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마치 특수학교를 다닌 자신은 지능이 낮은 것처럼 자존감이 상했다.

“병신이면...미안한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교육과정을 모두 특수학교를 다닌 여성장애인 ㄷ은 어렵게 취업을 했다. 사장의 사회봉사 유명세가 한 몫을 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

용한 출퇴근이 어려워 직장근처에 방을 구했다.

집과 직장으로 쳄바퀴 도는 생활이었다. 퇴근 후 회식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못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녀와 함께 몇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그의 사람은 걸어 가서 만나야 했다. 게다가 그녀의 순수함을 동료들은 때로 조금은 바보스러움, 모자름으로 대했다.

나이가 적은 남자직원은 자신이 직장에서 바닥청소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 여자 직원은 자신이 차 준비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 그녀에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느날 우연한 부딪힘으로 여자 동료와 말싸움을 했다.

“병신이면 겸손이라도 하고 미안한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누군가 그러더라. 못생기면 다냐고!”

상사들이 다른 여직원에게 하는 농담과 여성에게 일상으로 하는 인사치레를 그녀에게는 건네지 않는 것도 불편했다. 여성인 자신이 부정되는 것 같았다.

ㄷ은 차를 장만했고 이동수단이 확보된 그녀의 직장 내 역할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출판 기획의 전문가가 되었고 많은 외부일들을 그녀가 처리하지만 넥타이가 어울리고 반듯하게 걷는 뽀뽀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고 다닌다. 그것은 직장내에서 묵언의 타협이다. 그녀가 거래처를 관리할 때의 결과와 뽀뽀남의 한번의 언급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근사근 하지 않거니와 뽀뽀하게 걷는 키작은 여자는 도무지 프로다운 분위기가 풍기지 않기 때문에.

이성관계-“내 아들이 뽀뽀한 여자와 만났으면 좋겠다.”

여성장애인 ㄴ은 대학에서 만난 친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도 자신보다는 나왔지만 장애인이었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사느니 혼자살거나, 결혼한다면 보다 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싶었다.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반대는 극단적이었다.

“난 내 아들이 뽀뽀한 여자와 만났으면 좋겠다. 너 아이나 낳 수 있냐? 남편과 새끼들을 진사나 할 수 있겠니? 니들 둘이 결혼한다면 내가 약을 먹던가 혀를 깨물고 죽을란다!”

양육-“엄마, 왜 내가 불쌍해?”

여성장애인 ㄹ에게는 5살인 딸이 있다. 그녀는 휠체어를 이용한다. 그녀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걱정이다. 어느날 아이가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왜 내가 불쌍해?” 몇몇 이웃에서 하는 소리를 그녀도 알고 있다. 엄마가 몸이 저래서 아이가 고생이야. 어찌 키우나....

이동-“업어드릴게요... 누가 여자로 생각해요?”

여성장애인 ㄴ은 입사지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호출된 역무원도 리프트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역무원은 ㄴ에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업어주겠다고 했다. 아무리 도우미로 나온 역무원이라지만 남자에게 업혀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업히지 않고 올라갈테니 끝까지 동행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한층을 올라가는데 한참이 걸리고 숨이 가빴다.

“업히면 간단할텐데 왜 고집을 피워요. 바쁘구만.”

“내가 왜 아저씨한테 업혀요. 아저씨는 아니어도 저 마음은 불편해요.”

“누가 아가씨를 여자로 생각해요? 나 참!”

미리 기운을 뺄 수가 없어 ㄴ은 다음 층에서 역무원에게 업혔다. 다리를 잡았던 역무원

의 손이 점점 엉덩이로 오는 것같아 식은 땀이 흘렀다.

성폭력- “도망갈테면 가봐”

여성 ㅅ은 1급의 지체장애인이다.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의식적으로 늘 웃으며 동료들을 대함으로써 넘어서보고자 노력했다. 장애인은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늘 새로움을 구상하며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날도 늦도록 회사에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 같이 남아있던 동료와 저녁을 시켜먹고 차를 마셨다.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허리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쇼파에 누웠다. 그리고 동료가 들어왔고 ㄷ은 앉으려고 했다. 갑자기 동료는 어깨를 내리 눌렀다.

“니가 너무 예뻐서 궁금하다. 너 달거리는 하니?”

그녀는 다리를 들어 급소를 차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마음만 급했다.

“도망갈테면 가봐. 아무리 똑똑해도 어쩔 수 없잖아!”

여성ㄹ은 3급의 정신지체장애인이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자주 씻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남편은 사정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장애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시아버지와 결혼 전부터 그녀의 양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던 것이다. 고소하고자 했으나 고소기간이 성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이어서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

장애와 여성에 대한 차별 - 몸과 힘

왜 이런 장애를 가진 여성은 비장애남성에게, 장애남성에게 사회적 기회들을 양보당하고, 같은 여성들과 비교당해야 하는가.

차별의 근원은 사회적 가치 형성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편견의 조장에서 시작된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력있고, 힘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해 대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 부딪힌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정상성의 논리와 가부장제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을 과잉보호하거나 개인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양육한다. 같은 장애인어도 남성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때로 거부당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45%가 가정내에서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가정에서부터 그저 장애인인 자신이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숨죽이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같은 장애인이어도 남성장애인보다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은 덜 중요시 된다. 현재 성인인 여성장애인들은 몸도 힘드는데, 배워도 취업할 수 없을 데니까 하는 이유 등으로 의존적 삶을 설정하고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의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68%로 남성장애인 41.4%, 비장애여성 26.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갖추어도, 여성의 외모를 중심으로 밝은 표정, 건강하고 매끈한 신체의 아름다움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 적합치 않은 장애여성은 무성적으로 대우되거나 섹슈얼리티는 부정되고, 이것이 장애여성의 직장에서의 능력 평가 잣대의 하나로 작용된다. 임금 노동이든 가사이든 장애여성은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그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 고용기회에 있어 남성장애인의 43.5%가 취업을 한 반면 여성장애인의 19.5%만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체에 남성장애인이 37.5%인 반면에 여성장애인은 23.9%만이 취업되어 있다.

결혼에 있어서 가부장, 혹은 남성중심성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전체 미혼인 20대 여성이 50.7%이지만 여성장애인은 72.8%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성교제시에도 여성장애인의 44.6%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장애인의 25.3%가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40.0%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정신지체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집요하고 1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때로는 다수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또 어디서 빨리 구조가 필요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지....

남성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은 차별을 더욱 가중하고 조장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하지 못한 이동의 문제가 남성장애인보다 더욱 심각한 이유는 자기결정에 의한 이동권의 박탈뿐만 아니라 성적 모욕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회”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당하기까지 한다. 여성장애인의 32.2%가 스스로 외출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장애인의 17.6%에 비해 성과 장애가 개인의 자아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되며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게 한다.

모든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⁴일부영역에서든 타자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어떻게 실현되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기층의 삶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펴보자. 몸과 힘으로 대치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을 설명한다. 여성적인 것이 주변화되어왔고 장애인은 배제되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여타의 사회적 차별금지의 수준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장애인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금지를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은 남성안에 포용되고, 남성은 여성안에 포용되어야 함이 절실해진다.

올해 장애인의 날에도 정부에서는 적지않은 예산을 뿌리며 여전히 비장애인의 활동이 더 많이 보이는 시혜적, 형식적 행사를 치루었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단체들은 곳곳에서 일 상에서 여전히 아쉬운 것이 많은 장애인들을 불러모아 크고 작은 “베푸는”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로 나서서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날로 만들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 이렇게 싱그러운 사월 장애인의 날에 내 기억으로는 장애인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비가 왔다. 비오고 눈오는 날이 특히 불편한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욱 투지를 더해 거리로 나섰다.